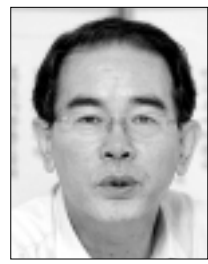


우리는 좋은 결과 또는 올바른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과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올바른 과정과 절차가 결국은 올바른 목적의 성취와 좋은 결과를 담보한다는 것을 망각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에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이 습성화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다. 업은 반드시 결과를 산출하기 마련인데, 어떤 결과를 겨냥한 행위가 꼭 그 결과를 산출하는 데서 그 영향력이 다한다는 법은 없다. 누적된 행위의 방식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결과이며, 그것은 그러한 방식에 익숙한 중생들이 사는 세상을 구성하는 힘이 된다.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그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습성, 즉 업이 가장 친숙하고도 편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겠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가 어떤 좋은 결과나 목적을 내세우며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방법과 과정, 그리고 절차를 밟아나가는가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주목하지 않아도 주목을 받을만한 곳에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일이 일어났기에, 이러한 문제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바로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그것이다.

민주사회는 여론이 이끌어가는 사회라 해도



불자 세상보기

성 태 웅  
건국대 철학과 교수

KBS는 여론을 존중하라

지나친 말이 아니고, KBS는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하는 대표적 기구이다. 바로 그런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완성된 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미리 결정된 안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공청회 등을 이용하여 졸속한 결정을 내리려 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여론을 조작하고 이용하는 데다가 뒤통을 자신감의 발로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서는 안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내놓은 안이 누가 뭐래도 가장 좋은 안이며,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식으로 변명하지 말 일이다. 지자천려(知者千慮)에도

필유일실(必有一失)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리 깊이 생각한다 해도 반드시 하나 빠뜨리는 일이 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나가는 방식이야말로 언론 기관에서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왜 이리 오만한 행태를 보이는가?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참으로 한심스럽다.

또 하나, 힘들고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은 절차를 밟아도 가장 안전하고 또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KBS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겸손하게 뜻을 두고, 다른 대안을 없는 것인가를 묻는 기관에 대하여는 자연 호감이 증

폭될 수 있고, 그것이 힘이 되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방송매체의 대표라 할 수 있는 KBS야말로 이러한 국민적 호감을 바탕으로 해야 할 대표적인 기관이기에 이번의 졸속한 행태에 대한 실망은 더더욱 클 수밖에 없다. 시청률의 부침에 관두세우는 신경의 몇 %만 쓴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한다. 여론 조성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KBS와 같은 기관이 가장 앞장서서 여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러 사람을 뜻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 뜻을 모아 앞날의 방향을 결정하는 엄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털끝만큼이라도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바로 우리 사회의 민주적 운영에 경종을 울리는 불길한 조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KBS의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납득할 수 없는 행태는 조그만 조짐에 그치지 않아, 상당히 심각한 경종이라 할 수 있다. 준비된 결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는 방식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해 내는 행태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민주주의를 지행하는 가장 큰 기동인 공영방송이라는 위치, 실질을 바탕으로 조심히야 할 일하고 두려운 자리라는 자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동국대의 시급한 '책임과 개선'

조계종립 동국대가 신장아 교수의 학력 조작 파문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물론 망신스러운 일이다. 이번 동국대의 '망신'은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게 학교 일각의 목소리다. 2006년 임용 당시부터 적지 않은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아무도 학력과 관련한 '발인'을 강도 높게 하지 않았다.

때늦게 책임을 묻고 자탄을 하는 것 보다 때가 이르렀을 때 옹기 있게 말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게 훨씬 낫다. 때를 놓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어리석음은 화살을 두 번 맞는 격이 아닌가. 신 교수가 광주비엔날레의 총감독직을 맡는 바람에 그의 가짜학위 문제가 온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지만, 그 전에 동국대 차원에서 해결했으면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직을 맡지 못했을 것이다. 동국대가 때를 놓쳐 망신을 크게 한 것이다.

동국대는 지금이 또 다른 '때'에 이르렀음을 알아야 한다. 이사회와 감동구조를 일소하고 학교측의 소극적인 대응을 적극적인 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잘못된 첩보하고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용기 있게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인사채용 시스템을 확고히 하고 어떤 경우에도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지 않도록 단단한 각오를 해야 한다.

오영교 총장의 의욕적인 해신 정책과 로스쿨 시행을 대비한 각종 준비활동 등으로 앞만 보고 달려야 할 동국대가 불명예스러운 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은 유감스럽고 추상적인 일이다. 작은 것에 이끌어 따져야 할 때를 놓치지 말고 큰 그림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사태를 수습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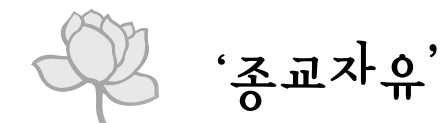
대선관련 단체들의 '앞과 뒤'

선거는 민주주의 실현의 꽃이다. 정치인들이 간혹 선거의 아름다움을 광복절처럼 국민들은 선거에 강한 애정을 가지게 된다. 불교계에도 12월 대선을 겨냥한 각종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종교와 정치는 당연히 분리되어야 하지만 완전한 분리도 어불성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요즘의 추세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 혹은 정당에 코드를 맞춘 단체들이 불교계에서 하나 둘 발췌되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는 불교계가 사회 흐름에 발맞추어 불교계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들을 선제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보이겠다는 것이다. 선거라는 주권행사를 통해 불교계의 목소리를 드러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발현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선거와 불교(불교)가 잘못 만나면 둘 다 가치를 잃게 된다는 염려다. 불교계의 사회 참여는 갈수록 세련되고 공익적인 차원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선거라는 국면은 그런 단계적 진화를 무시한다. 당장의 표에 모든 가치를 집중한다. 그래서 선거판은 종교적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생겨나는 일련의 단체들이 얼마나 불교권의 옹호에 앞장서고 건전한 불교문화 발전에 주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쪽으로 쏠려 불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불자들의 신성한 이름을 내세워 특정인들의 이익을 탐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20. 송실대 판결 박광서 (서경대 물리학과 교수)

법원, 학생의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 외면

기독교 대학의 채용 강요에 반발해 대학생들이 종종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법원은 아직 학생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1995년 송실대 법학과 고아무개 학생은 6학기 동안의 대학에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송실대대학의 학칙이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적 학칙이라며, 채용 불참을 이유로 학사학위를 받지 못한 데 대해 학위취수 이행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당시 1심 재판장 김홍식 현 대법관은 "예배 참석 의무를 학칙으로 정한 것은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학생의 자유를 외면하였고, 1998년 대법원도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교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확정함으로써 인권관계를 기대했던 국민을 실망시켰다.

2005년 11월 참여연대는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제출한 '김홍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서'에서 '기본권의 효력'이 국가뿐만 아니라 학교나 기업 같은 사회적 권력체에도 미친다는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를 고려할 때, 법률적 금지사항이 아닌 한 사립학교의 학칙 제정이 위헌적이라고 본 것은, 법률보다 상위 법규범인 헌법상 기본권을 외면한 과오를 범한 것이다.

졸업요건과 같이 학생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신분관계에 관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오히려 '종교의 자유' 같이 강한 효력을 가지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때도 불구하고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핵심은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아닌지를 법원이 그렇게 쉽게 판단해도 되는 것인가이다.

법원은 종교학자도 심리학자도 아니다. 그래서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고 얼버무림으로써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언급해 놓으면서도, 결론 부분에서는 '채용이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과감하게 못질을 하는 바람에 종교사학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었다. 지금까지도 이 판결은 무거운 바위 같이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위한 그 어떤 시도도 무력하게 만드는 장기로 기능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대학생들의 70% 이상이 '채용은 원하는 학생들만 하도록 하거나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며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학생활이 종교의식 강요로 얼룩지고 있는 셈이다. 정신적 폭력의 경우는 성희롱의 경우에서처럼 피해 당사자가 심적으로 피해를 느끼느냐 아니냐가 죄의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채용 강제 이수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대학생. <사진제공=연세춘추>

보는 추세인데, 법원이 '피해라고 느끼는 것이 이상하다'고 예민해 버리는 순간 피해자가 구제될 길은 막혀버리는 것이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회한한 상황,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람은 있는데 그게 고통일 리 없다는 황당판 판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난감하다. 흥미롭게도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4인(박준서, 이인회, 이인수, 서성) 중 불교인은 한 사람도 없다. 가톨릭 신자 1인, 개신교인 2인, 무종교인 1인이었다니 그들이 타종교인들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종교인권 관련한 판결에는 종교 이해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주문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달마도를 만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어야 소망하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약자달마, 병종달마) 각자의 근(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매일경제신문 인제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부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배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배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여주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다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풀어 볼 수 있는 비법(秘法)이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秘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 이 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번에 걸친 영가들의 영가(靈歌)를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秘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의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험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대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험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천축, 연속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풀이된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산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글쓴이: 해천법사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계의 상경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망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강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폘읍 운흥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